

불황 극복 7대 제안... [] 의 온도를 높이자

제품은 곧 기업... 불량률 0% 도전

일일품질회·해외 전문교육 이수 등 기업들 불황 돌파 새해 경영목표로

4 품질경영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냉장고 생산라인. 작업장 한가운데 '단위공정 불량 무재해 달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불량은 재해'라며, 냉장고를 '제품이 아닌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올해 산업계의 화두는 '품질'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목표는 '불량률 0%'다. 이를 위해 먼저 제품검사 인력을 충원했다. 불량발생 빈도가 높았던 용접방식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이후 불량률은 100만대 중의 1대 필인 1PPM 수준으로 줄었다.

광주사업장은 또 매일 아침 8시 30분 생산점검회의를 한다. 회의에서는 전날 발생한 불량품의 원인을 일일이 살피고 개선점을 찾는다.

이필의 냉장고제조 그룹장은 "냉장고 한 대가 라인에 투입돼 완성되기까지는 200명이 넘는 작업자들의 손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이들 중 한 명만 실수해도 해당 제품은 불량률이 되기 때문에 사원들의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올해 운영방침을 '공정품질 확보로 고객 신뢰 강화'로 정하고, 품질관리로 매진하고 있다.

가장 큰 수출시장인 북미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스포티지R 등 북미 수출차에 대한 제이디과위의 신차품질조사(IQS)에 전력하기로 했다. 신차 판매 후

3개월 내 클레임 발생건수를 1000대당 1대(CS 100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공장은 각 공정별로 분임조를 결성해 해당 공정에 대한 품질 개선 노력에 전력하고 있다. 또 발표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해 개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현장관리자들은 일일품질회를 통해 품질을 점검한다.

금호타이어는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유통점인 '타이어포로' 관계자들을 미국의 세계적 장비제조업체인 헨터사에 연수를 보내고 있다. 헨터사는 차량하체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헨터사 트레이닝 센터에서 활동얼라이언트·진동벨런스·타이어 교체에 관한 첨단장비 활용 등 전문 교육을 받는다.

에어컨 전문가인 캐리어에어컨은 '불량률 30% 절감'을 목표로 한 '품질관리 혁신'을 선언했다. 품질경영팀을 격상해 회장 직할조직

으로 운영하고, 매달 1회 회장 주재 품질대책회의를 열어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품질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지난 2010년 포스코패밀리 품질현장을 선포한 이후 모든 패밀리사가 품질경영 활동을 피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세계 철강사 경쟁력 평가기관인 WSD의 평가 결과, 세계 35개 철강사 중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들도 올해 경영목표 키워드를 '품질'에 두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해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올해 중소기업 경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7%가 새해 경영목표로 '품질경영'을 꼽았다. 이어 '내수경영'(70.7%), '기술경영'(35.5%) 순이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백화점 로비 콘서트장 변신

지난 주말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유신열) 1층 광장에서 열린 '시민참여 콘서트'에서 김예훈(장성고 2년) 양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시민참여 콘서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062-360-1977)와 트위터(@SSG-GJ)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배추 40% 싸게 600t 푼다

정부 수급대책 마련

최근 폭설과 한파로 배추 도매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도입한 상시비축제를 활용, 대형 마트나 전통시장에 배추를 싸게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시비축제는 농산물 소비량의 일정 수준을 미리 확보해 가격 급등 등 수급 문제가 생기면 시중에 방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수급조절용으로 확보한 겨울배추 8000t 중 600t을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시장가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에는 7일부터 공급하고, 전통시장 등은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공급을 시작해 설 성

수기(1월28일~2월8일)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서 장관은 "수년 전 배추파동 때 한 포기 1만5000원까지 갔지만 최근 배추 소비자가격은 4천원이 안 된다"며 "(상시비축제가)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추, 당근, 대파 등 겨울채소류의 공급 부족에 대비 현장 지도와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의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 올해는 '얇팍'

보험료·의료비 등 주요 공제 거의 제자리

월급쟁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큰 실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탓에 '13월의 보너스' 효과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작년 5조3228억원에서 1200억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

다 5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견줘보면 이번 증가 규모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내역별 전망치를 봐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외려 줄어든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져서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작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3%대 성장에 그쳤

으나 체크카드는 22%가량 늘었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작년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130억원(2.0%) 안팎 감소한다. 이렇듯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작년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는 연말정산의 소득세 환급액을 확실히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민경제 안정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 대표는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해 생산자인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국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로 취임한 이래 '발로



뛰는 농업경제'를 내걸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왔다.

김 대표는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고 소비자는 적정 가격으로 안전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

"서남권 경제발전 역량 결집"

목포·여수상의 신년인사회

목포 및 여수상공회의소가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역경제발전과 화합을 다짐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호텔 현대 컨벤션홀에서 김호남 목포상의 회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서남권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다.

김호남 목포상의 회장은 "인성지구 역세권 개발과 목포항 크루즈 부두 건설, 중국 유턴기업 서남권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각 기관과 주민들의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여수 앰블호텔에서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상공대상 시상 등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심장섭 여수상의회장은 "지난해 치러진 여수박람회의 성공은 여수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역민이 하나로 뭉쳐 이룬 성과"라며 "지역최대경 제단체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박람회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공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상의의 이날 4개의 분야별로 선정된 경영부문 (주)KCC 박인종 공장장, 산업평화부문 김유화 여수시 의원등 4명에게 2013년도 여수상공대상을 수여했다.

/여수=김창화·목포=김준석기자 chkim@

새얼굴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허을석 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정도·장조·감성경영 실천으로 농어촌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허을석(57)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으로 농어업인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 출신 허 지사장은

목포고, 광주보건대학, 동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부장, 총무부장, 화순지사장, 순천광역여수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

Advertisement for the 48th Kwangju Ilbo 3.1 National Marathon. It features a large graphic of a runner composed of many small photos of people. Text includes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3. 3. 1 | 금 | 08:30~16:00', and details about race routes and registration.